

MLB류현진, 12일 신시내티전 선발 등판

3연전 선발 로테이션 발표 리치 힐·알렉스 우드 이어 출전... 마에다 겐타는 불펜으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0·LA 다저스)이 선발 경쟁에서 살아남아 오는 12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에 시즌 10번째 선발 등판한다.

선발 자리를 놓고 쏘다 돌리기를 해야만 했던 마에다 겐타(29)는 일단 불펜으로 가게 됐다.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은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 앞서 주말 신시내티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발표했다.

예정대로 10일 리치 힐이 출격하고, 11일에는 부상자 명단(DL)에서 복귀할 알렉스 우드가 등판한다.

그리고 로테이션 구성에 있어 초미의 관심사였던 12일 선발로는 류현진이 나서게 됐다.

우드가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오면 류현진과 마에다 중 한 명이 불펜으로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류현진이 한 차례 선발 로테이션을 거르고 불펜으로 내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마에다가 타격이 됐다.

두 선수의 명암이 엇갈린 데는 최근 경기력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워싱턴을 상대로 4실점하며 패전투수가 됐지만 시즌 최다인 7이닝 동안 최다 투구수인 102개의 공을 던졌다.

최근 4경기 평균자책점 2.82를 기록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마에다는 5월 들어 구위를 회복하는 듯 있었으나 최근 2경기 연속 5회를 넘기지 못하고 4이닝 투구에 그쳐 부진했다.

다저스의 선발 자원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류현진이 선발진 한 자리를 완전히 굳

혔다고는 볼 수 없다.

12일 경기 내용에 따라 다음 로테이션을 거를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은 코칭스태프의 눈도장을 찍으면서 선발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분명하다.

류현진이 상대하게 될 신시내티는 현재 27승 30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타격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다.

팀 타율 0.268, 팀 홈런 82개로 워싱턴(0.275, 87개)에 이어 두 부문 모두 리그 2위다. 팀 OPS(출루율+장타율) 역시 0.784로 워싱턴(0.8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타격 뿐 아니라 리그 홈런 공동 선두인 스카트 세블러(16홈런)를 비롯해 아담 유발(14홈런), 조이 보토(14홈런), 에우제니오 수아레스(10홈런)로 구성된 중심타선은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뽐내고 있다.

류현진은 올 시즌 선발 등판한 9경기에서 9개의 홈런을 내주며 경기당 1개의 홈런을 허용하고 있다.

류현진으로서는 신시내티 타선의 한 방을 가장 경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또 볼타자 빌리 해밀턴의 발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밀턴은 53경기에 출전해 28개 도루를 기록하며 리그 2위 디 고든(마이애미, 18도루)을 10개 차로 따돌리고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 두는 능력이 뛰어나 출처럼 도루를 허용하지 않는 류현진이지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해밀턴의 주력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은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 앞서 주말 신시내티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발표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0·LA 다저스)이 선발 경쟁에서 살아남아 오는 12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에 시즌 10번째 선발 등판한다.

/김민근기자

정읍 국제 킥복싱대회 내일 개최

‘제8회 단풍마인기 한국·일본 킥복싱 국제전 및 챔피언 타이틀 매치’가 오는 10일 오후 7시 정읍역 광장의 특설링에서 펼쳐진다.

정읍시와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킥복싱협회(회장 김길남)가 주관하며 정읍역(역장 김은주)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국제전에 참가하는 일본 크래시체육관의 다카미 선수와 화순 피닉스스포츠의 선현범 선수 등 국내·외 14명의 프로선수와 1백여 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참여하며 대회는 김생기 정읍시장이 맡았다.

올해로 제8회 짝을 맞고 있는 정읍 단풍마인기 킥복싱 대회는 그간 국제전에 출전한 유명선수들과 함께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를 모두 배출하는 대회로서 그 위상을 계속 쌓아 가고 있다.

대회장인 김생기 정읍시장은 “꾸준한 대회의 개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평소 실제로 보기 힘든 격투기 대회의 흥분을 통해 정읍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로도 삼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대회집행위원장은 “대회에 참가하는 전국 선수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전을 통한 정읍시민들의 단합을 함께 도모하면서 정읍시민들에게 휴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정읍 대회 최초로 정읍역 특설링에서 벌어지는 경기로서 프로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와 아마추어 선수들의 파이터 넘치는 경기를 야외에서 볼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기대가 높다.

한편 오후 7시 본경기에 앞서 아마추어 선수들의 킥복싱 경기와 이벤트 공연이 오전부터 본격적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평창 조직위, 올림픽 패밀리 등록패지 발송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올림픽 패밀리를 위한 올림픽등록카드 발급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8일 “내년 2월9일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IOC와 국가 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연맹(IF), 방송, 프레스, 탐 파 트너, 차기 조직위 등 올림픽 패밀리를 대상으로 9일부터 등록패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등록패지에는 등록절차와 방법 등을 수록한 등록 매뉴얼과 각종 참가신청 양식 등이 담겨 있다.

올림픽등록카드에는 대회 참가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카드를 통해서만 올림픽 관련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조직위는 등록 패지 발송 후 오는 7월3일부터 온라인 등록시스템(eACR)을 통해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 10월31일 마감할 예정이다.

또 올림픽 패밀리 등록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사전올림픽등록카드(Pre-Valid Card·PVC) 인쇄를 시작해 신청자에게 12월부터 발송할 계획이다.

PVC를 소지한 외국인 대회참가자는 유효한 여권(여권 만료 기한 2018년 10월8일 이후)을 소지한 경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이는 등록카드 유효기간(2018년 1월9일~4월18일) 내 입국하는 대회 참가자로 한정된다.

입국 후 등록센터를 방문해 신분확인 카드 활성화 등 PVC 유효화 절차를 거치면 공식 올림픽등록카드로 대회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조직위는 이번 등록신청을 통해 약 96개국 참가 선수단을 포함해 총 5만 여명이 올림픽등록카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펼쳐지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오는 7월 중 등록절차가 시작된다.

/김민근기자

행정자치부, ‘평창동계올림픽 중앙·지방 지원 실무회의’ 개최

지자체들, 평창올림픽기간 지역 특산품 판매 허용 정부 건의 평창지원단, 각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인적·물적 지원 요청

전국의 광역단체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전광판을 통해 올림픽을 홍보하고대회기간중엔 각 지역 특산품을 개최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덕섭 지방행정실장 주재로 ‘평창동계올림픽 중앙·지방 지원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 중앙·지방 협력지원단’(평창 지원단)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참여했다.

각 시·도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을 반장으로 올림픽 전담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평창지원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시도에 올림픽을 조성부터 대회 운영까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올림픽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지자체 청사에 올림픽 마스

코트를 활용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보유매체를 통해 올림픽 정보가 상시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대회기간중 입·출국 지원 운전, 전산 등 전문분야에 지자체 공무원이 투입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자원봉사자의 교육 장소를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모든 지자체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올림픽을 함께하도록 국내 성화 봉송기간(2017년11월1일~2018년2월8일)중 지역별 축하 행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또한, 평창올림픽 대회기간중에는 개최지에서 각 시도가 매일 돌아가며 해

당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17개 시도의 행정국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오늘 회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첫 번째 회의”라며 “재정부 출범 후 첫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면 품격있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